

성서언어연구—은유와 상징

- 은유(metaphor): Is & Is not => 예 주는 반석이다 (Yes & No).
- 기록=> 무엇을, 어떻게, 왜

말/언어의 세 가지 용도

- 말(Words)
 - Informative: “무엇”. 과학적 언어, 시비를 가림 (아침에 비가 왔다. 강우량이....)
 - Expressive: “어떻게” 감정 전달. 시와 문학을 포함한 대부분의 의사소통 (내 맘에 비가 온다 => 우울하다?; 주는 반석이시며..=> 든든하다)
 - Directive/Performative: “왜”.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말/표현. “문 닫아라”=> 시끄럽다, 조용히 해라; “비 온다”=> 들어와라, 신발 들여놔라, ...
- 행동(Acts)—기적, 부활, ...
 - Informative: 과학적 언어, 시비를 가림 (“병이 나왔다”)
 - Expressive: 감정 전달. 고통 끝! (이는 예수가 부활했다=> 든든하다); 마 14:2 이[예수]는 세례요한이다=> 큰일 났다!
 - Directive/Performative: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말/표현. 죽음—죽음과 같은 상황—을 깨치고 일어나 살아라. (막 9:9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는 한....; 마 27:52-53 죽은 자들이 일어나 예루살렘 성 내를 걸어 다니다)

결론

- 성서의 말과 글을 지금도 “구원”의 사건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=> 어떻게?(의도/가치/뜻의 재발견)
- 기록에서 사건으로, 사건에서 의도/가치로
- 그 의도/가치를 지금 내 말로 바꾸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=> 이해, 해석

모든 문서, 문학작품에는 이를 가능케 한 어떤 사건/실마리가 있으며, 아울러 이 (작품)을 통해 전하려는 의도(가치)가 있다. 독자의 으뜸된 임무는 저자의 의도/뜻을 살피는 일이다.

